



통우컬럼

창대하리라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참가국은 93개국이다. 그러나 겨울 종합스포츠대회인 동계올림픽이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했던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동계올림픽은 프랑스에서 1924년에 열렸는데, 그 때는 16개국만이 참가했다. 그런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93개국에서 2,925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하계올림픽 역시 1896년 아테네에서 개최될 당시 참가국은 14개국이었으며 참가자 245명 중 그리스 사람이 200명이 넘는 정도로 규모가 아주 작았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는 206개국에서 무려 10,903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기량을 겨뤘다. 2020년 일본 도쿄 올림픽에는 더 많은 국가들과 선수들이 참여할 것이다.

무슨 일이나 누구에게나 처음은 미약한 법이다. 밭에 뿌려진 씨처럼. 그러나 거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점차 열매를 맺히는 것이 자연이치요, 순리다. 마치 겨자씨 하나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막4:31~32).

‘남창(濫觴)’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남칠(濫)’·‘잔 상(觴)’으로 이루어진 이 말은 ‘술잔 하나 겨우 넘칠 정도의 작은 물줄기’를 뜻한다. 한강도 양쯔강도 시작은 졸졸졸 흐르는 가는 물줄기에서 시작했다는 말이다. 미국 최대 기업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중고 자동차를 판 돈으로 차고에서 시작했고, 현대의 정주영 회장도 쌀장수부터 시작했다. 나 역시 철산리 유치원 지하에서 1명을 놓고 시작하여 세계 70여 개국을 예수중심으로 아우르고 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만리장성도 벽돌 하나에서 출발했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8:7)는 말씀도 성장과정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는 아이가 없듯, 첫
순간에 배부를 수 없듯, 처음부터, 시작부
터 대업을 이루고 대성하기는 어렵다. 하나
님 말씀에 의거하여 차근차근 노력하다보
면 반드시 창대한 날이 올 것이다. 욕심을
버리고 오늘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성공의
노하우다.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였다. 군 제대 후 아직 취직하기 전이었는데, 집안에 일이 있어 차를 이용할 일이 많아졌다. 그러다보니 본의 아니게 형이 출퇴근용으로 쓰는 차를 자주 빌려 타게 되었다. 형이야 집안일이니 내줄 수밖에 없었겠지만, 많이 불편해보였다. 그렇다고 차를 또 살만큼 넉넉한 형편이 되지 못하니 어쩔 수 없었는데, 바로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다!’

‘그래, 형의 차가 내 것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 형이 더 좋은 차가 생기면 되지.’

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그날로 백수 주제에 차가 생겼다.

그리고 그렇게 신속한 응답을 받고 내가 형에게 한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다는 뜻이 네요.”

성경도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목사님도 ‘기도는 응답받고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때부터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 영감을 주신 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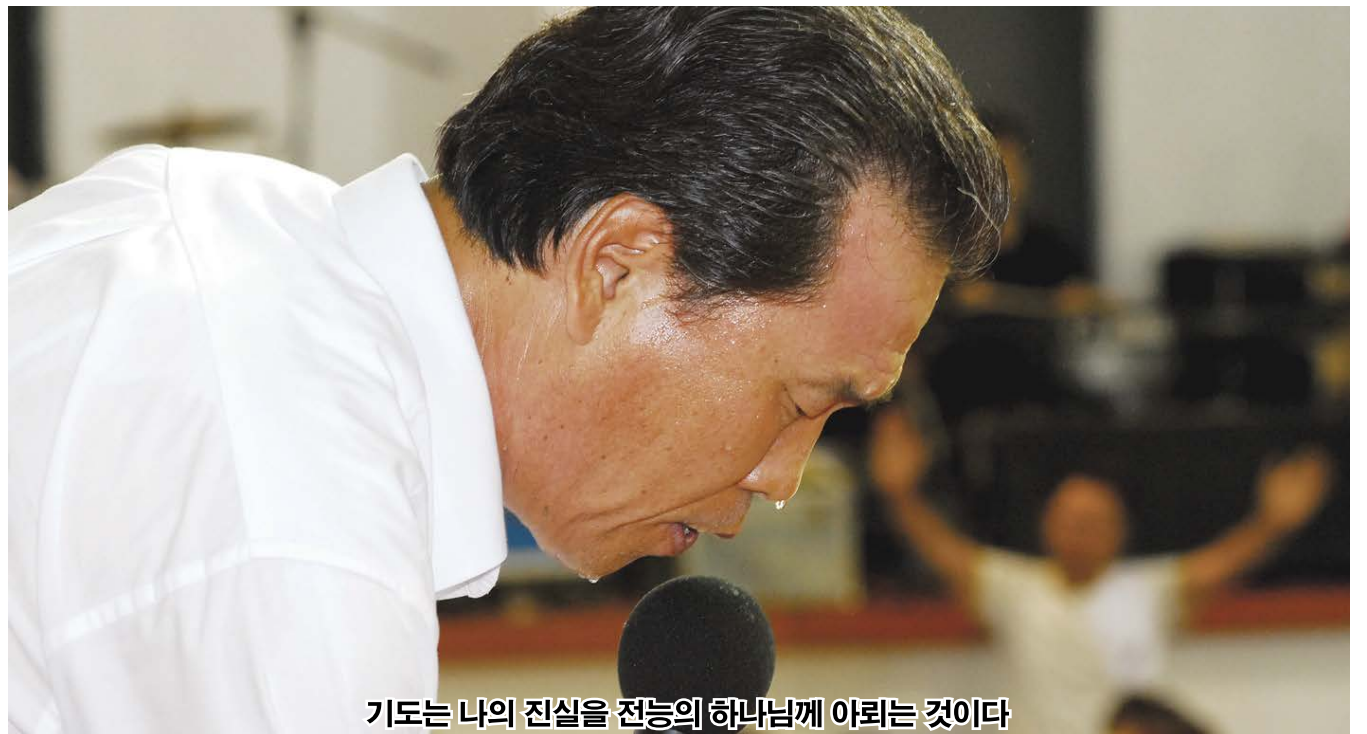
고 있을 때,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양
치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펼쳐 일
어날 수 있었던 힘은 오직 만군의 여호
와, 전능의 하나님이었다.

부도날 수가 없다. 기도가 부도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을 믿지 못하는 허약한 믿음이 부도내는 것이다. 도중에 포기하기 때문에 부도나는 것이다.

해외집회 중에 목사님이 우리 일행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처럼 외국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런데 사실 기적이라기보다는 전능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다윗처럼



기도는 나의 진실을 전능의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형의 차를 저에게 주시고, 형에게 더 좋은 차를 주세요.’

지금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기도를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형이 다니는 직장의 부하직원이 오랫동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다. 형이 지위에 비해 너무 초라한 차를 타고 있어 바뀌자면 좋겠는데, 감히 부하직원이 자기 차를 타시라고 말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주 차 없이 출근하는 걸 보고 사정을 물으니 여차저차 하여 동생이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용기를 내어 말하더라.

“제가 회사 근처로 이사하게 되어 차가
굳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제 차를 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는 절대 부도 나지 않는다.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 대상이 제멋대로 인간이 만들어놓은 우상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부도가 날 수 있단 말인가?

그 전능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소년 다윗은 양을 잡아가는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때려눕혔고, 만군의 여호와와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고기는 인재들도 골리앗이 두려워 벌벌 떨

럼 강하고 담대한 목사님의 믿음이 이 사역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믿는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숭하게 고백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과 고민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망각하여 독수리가 닭처럼 구구거리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부도나지 않는다. 다윗처럼, 목사
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구하고 찾고 두
드리며 침노하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예배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24:1~6)

지혜와 지식의 날개를 달아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잠 24:5~6).

독수리가 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독수리는 닭처럼 퍼덕거리지 않고 날개를 쭉 펴고 창공을 높이 날다. 참 근사하지요. 두 날개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1m내 외의 큰 날개의 힘으로 그렇게 높이 멀리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독수리라도 날개를 잃으면 절대 날지 못하고 추락하고 맙니다. 한 쪽 날개만 다쳐도 절대 날 수 없습니다.

높이 날고 싶습니까? 멀리 가고 싶습니까? 어떤 분야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머리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힘 있고 큰 두 날개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지혜와 지식의 날개입니다.

성경은 큰 사람이 되는 조건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신4:6). 솔로몬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대하1:10)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내가 습득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상식의 선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내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이나 열정은 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잠19:2). 마치 화로 없는 불같다고나 할까요? 화로 없는 불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고 나기 십상이죠.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음식장사를 하더라도 그 분야에 알고 시작해야지요. 최고의 레시피를 알고 시작해야지 간판부터 걸면 됩니까? 운전을 하려면 차에 대한 것부터 운전하는 법까지 알아야 하지요, 차부터

살아야지요.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인생의 자본금이지요. 그런데 어떤 자는 이 자본금을 늘려 쓰는가 하면, 어떤 자는 줄여 씁니다. 전자는 부지런한 사람이고, 후자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요즘 금수저, 흙수저를 논하는데, 많이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흙수저라도, 아니 흙수저조차 입에 물지 못하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힘이 생기는 겁니다(잠24:5). 출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한 게으른 자들의 변명입니다. 배우는 게 힘드니까, 노력하는 게 힘들니까 그러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나가 열심히 일해서 배로 남겼고, 두 달

란트 받은 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라서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야단을 치자 그가 변명을 주저리주저리 늘어놓습니다. ‘저는 흙수저라 안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 때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 있으리라”(마 25:26~30)고 했습니다. 그럼요, 게으른 악이요, 이를 형상화하면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그 분야의 최고의 스승에게 배워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부문에서 일본의 하뉴 유즈루 선수가 금메달을 땀습니다. 그런데 하뉴보다 더 주목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하뉴의 코치인 브라이언 오서입니다. 왜 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가 하면, 그가 바로 피겨 여왕 김연아의 코치였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배운 다른 제자 스페인의 하비에르 페르난데스도 동메달을 거머쥐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최고의 스승에게 배워야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워야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해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한 겁니다(욥8:8).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과 집중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기 힘들거든 그들이 쓴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자입니다. 명품 옷을 사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명품인생을 만들기 위해 지식함양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데 인색하지 말고, 책 사는데 돈 아

끼지 말고 투자해야 합니다. 배우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님니다. 끝내

르 게 부끄러운 거지요. 그러니 자존심 내려놓고 열심히 부지런히 배우시다. 투자하십시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를 주인이 찍어버리려고 하자 무화과나무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과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나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눅13:8~9)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게을렀던 것을 깨고 부지런히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찍어버립니다. 퇴출됩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이 출근 전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그러는 겁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열심히 부지런히 배우세요. 이제 한 쪽 날개를 달았으니 다른 한 쪽의 날개도 마저 답시다. 지식이 배워서 얻는 거라면 지혜는 하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곧 지혜란 하나님께 받는다는 말

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사 11:2)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식이 얇아지면, 지혜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으나 지혜가 없다면 어쩌면 그 지식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분위기를 딱딱하게 만들 것입니다. 평생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풀어 쓸 줄 모르는 사람 말입니다. 말이 좋아 선비형이지만 참 답답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제일이라고도 말씀하시고(잠4:7), 지혜를 총명, 현명함이나 분별력과 연관하여 설명하신 것입니다.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지혜도 지식처럼 부지런한 자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사 지혜를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없으면 할 일도 없고, 아는 것이 없으면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배워서 남 주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배워서 알면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배우면 기업을 살릴 수도 있고, 국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배워서 남 줘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에, 그리고 교회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믿는 자들은 산 위의 동네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날개를 달고 높이 멀리 날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늘 기도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배울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을 세상에 활용할 줄 아는 지혜도 얻어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교육부재현상은 후진성을 탈피할 수 없다

계약하면 그거 곧 고철 됩니다. 누구나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합니다. 왜요? 귀찮은 겁니다. 공부하려니 힘든 겁니다. 노력하려니 고달픈 겁니다. 그런 자는 어쩔 수 없지요, 평생 현재에 만족하며 그 밥에 그 반찬으로 살아야지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단을 거두는 기쁨을 누린단 말입니까? 수신제가(修身齊家)도 못하는 주체에 무슨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입니까? 결국 부도난 인생인 신용불량자로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용달샘 ::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도, 지구도 낡아 지고 있으며, 인간의 조상들도 흙으로 돌아갔다. 무엇을 가리켜 새것이라 할 수 있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 예수님의 진리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 구원이라 함은 천국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건져진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삶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올바르게 가야한다. 구원은 이루어졌으니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따르라’, 그 안에 품어주시고 예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를 따르라’ 행동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전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던 사람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 중학생다운 생각을 해야 되고, 걸맞은 행동을 해야 된다. 고등학생이 되고, 또 성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엄마~ 엄마~ 밥 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전년이나 되는 시간이 흘렀건만 주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삶은 이상하게 잘 행해지지 않고 있다. 교회는 나 잘되기 위해서 오는 곳으로 하면 이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하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는 것이다. 구원받으러 오는 자가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교회

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쓰이기 위한 것이다(롬13:11~14).

이 세상은 마치 바다에 떠서 항해하는 배와 같다. 배에서 임의로 내릴 수도 없고 더 나아갈 수도 없지만, 배가 부두에 닿는 그 순간부터 육지에 올라올 수 있듯이 세상은 배를 타고 있는 시기이다. 별 소망 없이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기간이다. 이제 육지에 닿을 시간이 되면 모두가 내릴 준비를 하듯이 자신을 위한 하선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세상은 지금 항해하는 선박일 뿐이다. 그 누구도 그대로 배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다. 하선을 준비해야만 한다.

우리의 신앙은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우리가 ‘그까짓 한 세대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고 그저 천한 구원이라도 지옥만 안가면 된다’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경주자같이 달려가는 것이다. 꺾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어이없이 세월을 보내지 말고 급히 회개하고 옆드려 간구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사람의 영혼은 질그릇에 들어 있으니 언제 깨질지 모른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전심전력으로 힘쓰자.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To Be Succeeded ::

믿음의 대로를 여는 삶

큰 아이가 첫 성탄절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던 때의 일이다. 평소에도 주일학교에 가기를 힘들어하던 터라 두 달여간 매주 일 남바 연습하더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가족들은 아이가 힘들어하니 더 크면 시키자고 얘기했다. 그러나 중도하차하면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았다. 마침내 두 달여의 시간이 흐르고 리허설이 있던 날, 대체로 씩씩한 다른 친구들과 달리 울면서 가는 아들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말씀이 심령에 날아와 꽂혔다.

그리고 마침내 성탄절. 3부와 4부 두 차례 단에 오른 후 놀랍게도 아이의 얼굴은 해처럼 밝아져 있었다. 손잡고 경총경총 뛰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엄마, 오늘 정말 재밌게 놀았어.’였다. 당시 막 세 돌 지난 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었겠지만 우리는 확신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주셨음을. 바로 그 다음 주일 부터는 아이를 주일학교에 보낼 때 더 이상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었다. 아이가 아빠 엄마보다 앞서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으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환경이 힘들거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때에 오지 않으면 불평, 원망하고 근심, 걱정함으로 내 영혼을 얼룩지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부정이 아니다. 다만 소망을 굳게 붙잡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끝내 이루는 것이다. 출애굽하고도 원망 불평으로 일관하다 광야에서 멸절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말고, ‘풀무 불 가운데서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되라는 것이다.

두려움, 고집, 선입견 같은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해야 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견고한 진이며, 믿음의 행보를 저해하는 요소다. 조급할 필요 없다. 주저앉아있지 말고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잡고 한 발짝씩 떼듯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걷는 그것이 믿음의 대로를 활짝 여는 지름길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때가 차매 내 삶에 정녕 응함을 목도할 것이다.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걸레가 되자

‘우리 모두 걸레가 되면 어떨까?’ 만일 이런 말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도, 동의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걸레하면 웬지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걸레가 더러우면 이미 걸레가 아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어찌 더러운 것을 닦을 수 있을까. 세상이 너무 더럽다. 추하다. 냄새가 지독하다. 누군가 닦아내야 한다. 걸레가 되어 닦아내야 한다. 그것은 깨끗한 자만이 할 수 있다. 더러운 자는 닦아내야 할, 개혁의 대상이 될 뿐 이에 협력할 수 없다.

우리는 본시 세상을 닦을 만한 그런 위인이 못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빨려서 뽀송뽀송하게 되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 몸과 마음에 흠뻑 묻어 있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상을 닦을 수 있는 것이다.

나 하나가 낮아져서 세상이 아름답고

환해지며,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자가 건강할 수 있다면 걸레면 어떻겠는가. 예수님이 이미 인류를 대청소하고 가셨으니 우리는 틈새에 낀 먼지만 닦으면 되는데 말이다.

더러운 곳에서 걸레 역할을 하는 것, 냄새나는 것을 닦아내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더 냄새나고 흉물스럽게 변해갈 것이다. 어두운 곳에서는 빛이 최고요, 썩어가는 것에는 소금이 으뜸이며, 더러운 곳에서는 걸레가 필수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하셔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셨으며, 베드로 사도를 통해 믿음의 8음계를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

“걸레가 되어 보시렵니까?”



:: 생명의 말씀 ::

순종이 먼저다!

나에게는 결혼을 하자마자 큰 고비가 다가왔다. 목사님께 미국 신학대학원 유학을 설득하여 허락을 받았다. 석박사 과정을 하려면 10년은 족히 걸릴 텐데, 흔쾌히 허락하시고 축복기도도 해주셨다. 아내와 함께 유학 준비를 다 마치고, 출국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즈음에 춘계산상집회로 기도원에 계신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셨다. 기도원으로 두 사람 모두 당장 내려오라는 급 호출이었다. 불안했다. 아니나 다를까. 유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며 완강한 반대를 하신다. 여러 번 경험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반복하시는 그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잔뜩 시험에 들어 예배도 들어가지 않고, 숙소에서 홀로 남아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일었다. ‘여기가 기도원인데, 나는 뭐하고 있는 건가? 이러면 안 되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모든 말

유학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니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다. 이것 빼고, 나머지를 다 할 수 있는 자유 말이다! 그리고 가야할 길과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마음이 유연해졌고, 목사님이 지시하시는 사역지로 두 말 없이 순종하였고, 그로부터 이제까지 이르게 되었다.

예배는 나를, 번민하는 길목에서 또렷하게 가야할 길로 인도하시며 순종케 하시는 ‘살아있는 경험’이다! 막으시는 것도, 강행하시는 것도(행16:6~10)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갑작스럽고 이유 없는 행동에 반감이 생길 때가 많다. 그런데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다. 순종하고 나서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된다.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보다 ‘순종’을 먼저 한다! 길 찾는데 머리 싸매고 시간 낭비하지 말자(엡5:15~21)! 순종이 빠른 길이다. 왜냐하면 길은 하나님께서 훤히 보여주시니(시119:105) 말이다.

송직화 목사

jesus_allinall@daum.net

